

‘빙산’에서 ‘일각’으로: 요한 갈통의 ‘구조적 폭력’ 개념 비판

이동기*

국문요약

이 논문은 요한 갈통의 ‘구조적 폭력’ 개념이 갖는 문제를 네 가지로 나누어 비판했다. 첫째, ‘구조적 폭력’ 개념은 불의와 불평등, 차별과 재난 등 다양한 현상들을 포괄하기에 모호하고 학문적 분석에 유용하지 못하다. 둘째, 그 개념은 구조와 행위의 간격을 무시한다. 구조는 행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로 폭력이라고 말할 수 없다. 셋째, 그 개념은 구조의 추상적 결과만을 주목하게 만들기에 폭력의 행위 과정과 신체 경험을 무시한다. 마지막으로 그 관점은 평화연구에서 전쟁을 지위버림으로써 실천적 성격을 오히려 잃었다. ‘구조적 폭력’ 개념과 관점은 폭력의 역동성과 행위성에 눈을 닫게 만들었다. 다원주의 관점의 평화론이 발전하려면 ‘구조적 폭력’론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주제어: 요한 갈통, 구조적 폭력, 직접 폭력, 적극적 평화, 평화학

I. 머리말

“역사와 정치에 관하여 사유하는 사람은 누구든 폭력이 인간사에 항상 수행하는 거대한 역할을 깨닫지 않을 수 없으며, 그래서 폭력이 특별한 고찰을

* 강원대 평화학과 교수, leedongki@kangwon.ac.kr

위해 아주 드물게 선정된다는 사실을 일별하고 오히려 놀랄 것이다(한나 아렌트 1999, 31).” 1970년 한나 아렌트의 관찰은 이제 낡았다. 상황은 변했다. 폭력 연구는 역사학을 비롯한 인문학과 사회학을 비롯한 사회과학 그리고 평화학에서 핵심 조류로 발전했다(Hoebel and Knöbl 2019, 18-40; Gudehus and Christ 2013; Schumann 2002; Imbusch 2000; Schumann 1997; Heitmeyer and Hagan 2002).

1990년대부터 등장한 유럽과 북미의 폭력사회학과 폭력사의 ‘새로운 폭력 연구’는 국내에도 일부 학자들에 의해 좀 소개되었다(김학이 2017, 51-81; 광귀병 2019: 195-201; 조프스키 2010). 폭력사회학과 폭력사의 주창자들은 폭력을 근대화라는 ‘정상’ 과정의 일탈로 규정하는 관점과 폭력을 근대화의 필연적 귀결이니 하는 논의로부터 동시에 벗어났다(Baberowski and Metzler 2012, 10-13). 그들은 노르베르트 엘리아스(2012)처럼 문명화 과정의 맥락에서 폭력을 이해하는 것도 거부했고, 지그문트 바우만(2013)을 따라 ‘정원사-국가’니 하는 방식으로 폭력을 보는 관점도 비판했다. 둘 모두 폭력을 기괴한 비정상으로 간주하며 그것을 특정 역사 시기나 체제의 결함과 직접 연결시키기 때문이다(Baberowski 2008, 7-9).

‘새로운 폭력연구’는 폭력이 특정 문명의 이탈이나 귀결이 아니라 인간 삶의 역사와 현실 도처에 편재해 있음을 전제한다. 그들은 폭력을 행위나 현상, 그리고 행위자들 사이의 상호작용과 역동성, 또는 과정의 틀로 규명한다(Hoebel and Knöbl 2019). 미국의 사회학자 랜달 콜린스(Collins 2008)의 ‘폭력상황’ 연구나 독일의 역사학자 외르크 바베로프스키(Baberowski 2015)의 ‘폭력공간’ 연구 등은 모두 폭력을 인간의 보편적인 행위나 현상으로 보는 관점에서 출발했다. 그들은 근대성이란 틀에 갇히지 않고 폭력을 역사적 또는 사회적 행위양식이자 인지형식으로 보며 그것의 역동적 발현 과정과 폭력공간과 상황 또는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에 주목한다(Lindenberger and Lüdtkke 1995).¹⁾

한편, 한국의 경우 한국현대사와 서양사 분야 및 역사사회학에서 여러 묵중한 폭력사 연구들이 발표되었다(서울대학교 사회학과 형제복지원연구팀 2021; 김상숙외 2019; 한성훈 2014; 박효근 2014; 양희영 2015). 특히 지

1) 이 글은 유럽과 미국의 폭력사회학과 폭력사 연구의 보편적 관점과 성과들을 포괄적으로 언급할 뿐이다. ‘새로운 폭력연구’ 내부의 여러 조류와 쟁점에 대해서는 필자가 차후 따로 논문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난 십 수 년 동안 한국의 과거사 정리 작업은 폭력 연구를 자극하는 많은 증언과 보고서들을 생산했다. 다만 그 연구 성과가 역사의 비극과 참화에 대한 비판적 규명을 넘어 폭력의 성격과 양상에 대한 포괄적 분석과 이론적 논의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반면, 폭력에 대한 철학적 이론적 논의는 실제 역사와 현실의 폭력 경험과 잘 연결되지 못했다. 폭력 개념이나 이론에 대한 국내 연구들은 유익하지만(이문영 2015) 주로 사상가들의 개념 분석에 집중해 있어 그것으로는 폭력의 실재에 접근하기가 어렵다.

폭력을 다룬 문헌들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폭력연구의 진전을 막는 것에는 인습적인 인식 관점이 둘 있다. 하나는 저항 폭력에 대한 과잉 의미 부여고,²⁾ 다른 하나는 요한 갈통(Johan Galtung)의 ‘구조적 폭력’론이다. 두 폭력론은 역사와 현실의 폭력 이해에 도움을 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폭력 논의를 지배하고 있다. 국내 폭력 논의가 이 두 폭력론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주로 현실의 긴박 때문으로 보인다. 억압과 지배에 대한 비판의 급박성과 실천의 요구로 그 폭력론들이 지식인과 학자들을 현혹했다. 그것은 폭력에 대한 더 진지한 학문적 분석과 토론을 도리어 방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그 중 ‘구조적 폭력’ 개념과 관점의 결함을 다룬다. 이 글은 그 개념이 왜 문제인지와 그 관점이 폭력 이해를 어떻게 교란하는지를 다룬다. 특히 평화학의 관점에서 ‘구조적 폭력’이 지닌 문제를 함께 살핀다. 아울러 그 비판이 폭력 연구의 새로운 관점과 방향을 정할 때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도 조망한다. 이 글은 국내 폭력과 평화 논의가 갱신되려면 먼저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갈통의 개념을 비판적으로 극복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를 갖는다. ‘구조적 폭력’과 ‘적극적 평화’라는 낡고 관성적인 논의를 넘어서야 평화부재의 복잡성과 역동성, 평화 형성의 다원성과 창의성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

국제 학계에서 갈통의 ‘구조적 폭력’ 개념을 둘러싼 토론과 논쟁은 오래되었고 갱신되었다. 1970/80년대에는 그 개념의 수용과 지지가 두드러졌다.

2) 폭력에 대한 논의가 ‘저항 폭력’의 의미 찾기로 귀결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폭력 분석과 인식에 유익하지 않다. 저항 폭력은 폭력의 한 형식일 뿐이다. 그것에 대해서는 “평화교육 관점에서 전쟁을 어떻게 다룰까?” 2021. 『역사와 교육』 20호. 196-244를 참고하라.

‘구조적 폭력’ 개념은 평화학이 국제관계 연구를 벗어나 독자 학문으로 발전하는데 큰 자극을 주었다. 그것은 평화학만이 아니라 사회과학과 심지어 인문학에서도 폭력과 평화를 논할 때 꼭 언급되는 고전 개념으로 정착했다. 물론 그 개념의 학문적 적실성에 대해서는 회의와 비판도 거셌다(Boulding 1977; Lawler 1995, 80-84; Boulding 1997, 75-86; Roth 1988; Ziemann 2002, 20-26; Schumann 2002, 86-100; Nedelmann 2002, 101-109; Hoebel and Knöbl 2019, 30-32; 정천구 2011, 51-57). 특히 1990년대부터 폭력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연구가 쌓이면서 그 개념과 관점은 점차 학문 영역에서 과거의 영예를 잃었다. 특히 홀로코스트를 비롯한 국가폭력의 연구 성과들은 가해자들의 행위 동기와 가해 가담 과정을 면밀히 밝혀 폭력을 행위와 현상으로 분석하게끔 큰 자극을 주었다. 그 결과 폭력 연구자들은 ‘구조적 폭력’ 개념이 실천적으로는 매력적이어서 비판적 지식인들이 공론장에서 즐겨 사용하지만 구체적 실상을 분석하는 학문적 연구에서는 적절하지 못한 개념이라고 비판했다. 그것은 분석 개념으로 삼기에는 너무나 포괄적이고 무차별적이어서 폐기되거나 오히려 체제 저항을 옹호하고 조장하는 정치투쟁 개념에 불과하다고 의심받았다. 그 비판은 현재까지 이어지면서 ‘구조적 폭력’을 원래의 의미대로 수용하는 평화학자는 현저히 줄었다(Imbusch 2017, 26-36; Brunner 2020, 154-155).

하지만 논쟁의 불꽃이 완전히 꺼지지는 않았다. 최근에도 ‘구조적 폭력’ 개념의 무용성을 둘러싼 새 논쟁이 독일 학자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Braun 2021; Imbusch and Mayer 2021). 폭력사회학과 폭력사 연구의 전제는 폭력을 행위와 현상으로 보는 것이었기에 폭력과 관련해서 구조나 문화나 하는 수식어는 애초부터 성립하기 어려웠다(Imbusch 2004; von Trotha 1997; Nunner-Winkler 2004, 45-46; Baberowski 2008, 7-9). 하지만 사회학자이자 평화학자로서 ‘구조적 폭력’의 적실성을 비판하던 페터 임부쉬는 행위와 과정을 보더라도 구조와 권력관계의 문제를 무시할 수 없기에 그 동안 “과소평가 되었”던 ‘구조적 폭력’ 개념을 재활용하기를 권했다(Imbusch 2017). 폭력 행위와 신체, 의도와 상호작용 등에 주목한다고 해서 사회 구조의 맥락과 문화 코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유사한 논쟁은 미국을 비롯한 여타 국가들에서도 이어지고 있다(Collins 2008; Ray 2018).

이 글은 그 논쟁들을 포괄하지는 않는다. 이 글은 그것을 배경으로 삼지만

갈통의 ‘구조적 폭력’ 개념에 대한 기본적인 비판에 집중한다.³⁾ 그 동안 국내에서는 그 개념에 대해 비판적 검토가 부족했다. 일부 평화연구자들이 갈통의 평화론에 의지해 북한 연구나 분단 현실을 조명하려는 시도는 흥미롭다(김동진 2013). 필자는 그것의 개념적 전제가 더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이 글에서는 갈통의 개념을 수용하거나 전제한 국내 논의를 다루지는 않는다. ‘구조적 폭력’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는 향후 폭력과 평화에 대해 새로운 연구와 토론을 보조하고 자극할 것이다. 이제 그 개념의 개요를 먼저 살핀다.

II. 개요: ‘일각의 빙산’

독일 평화학자 디터 쟁하스(이동기 2013; 디터 쟁하스 2016)가 평화를 육모(hexagon)로 이해했다면, 노르웨이인 갈통은 ‘삼각형의 평화학자’다. 쟁하스는 폭력독점과 법치주의, 민주적 정치참여와 흥분통제, 사회정의와 건설적 갈등 해결 문화 등 여섯 가지 요소로 구성되는 문명화의 복합구성(configuration)을 평화로 보았지만, 갈통의 평화론은 삼각형 내지 삼각 구성의 중층적 연쇄다. 갈통은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갈통 2000, 17)의 첫 문장을 “평화 연구는 진단, 예측, 처방이라는 삼각구도가 적용될 수 있다”고 시작했다. 갈통은 “평화연구가 다시 세 가지, 즉 경험적, 비판적, 구조적 차원을 갖는다”고 이었다(갈통 2000, 37-38). 사회학에 앞서 수학을 공부했던 갈통은 도식 구성과 유형 및 모델 창안에 익숙하다. 갈통이 넷이나 다섯, 여덟이나 열 가지로 구분해 설명하는 내용도 적지 않다.

대다수 서구 평화학자들과는 달리, 갈통은 갈등과 평화 논의에 독특한 문명 이론, 즉 종교와 우주론을 끌어와 수시로 나누고 엮는다. 특히 그는 동양 사상과 전통을 높이 올렸고, 간디와 불교 사상은 그의 평화론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⁴⁾ 갈통의 평화론은 서구 대학의 학문적 사유 관성과 인습을 한참 넘

3) 이 글은 갈통의 평화 연구와 실천 전체를 다루지 않고 ‘구조적 폭력’ 개념에만 초점을 맞춘다. 갈통의 평화 이론과 실천의 비판 쟁점은 디터 킵켈부어(Dieter Kinkelbur 2002)를 참조하라.

4) 갈통은 “지구상에 사는 다수 주민들의 삶이 개선되려면 평화 지향의 개발정책이 어떤

어 섰다. 그의 분류와 종합, 분석과 성찰은 상당히 흥미롭고 자극적이다. 동시에 그것은 매우 혼란스럽다. 갈통은 분석과 서술을 통해 더 검토해야 할 여러 세부 논의를 분류와 종합을 통해 추상하거나 비약한 뒤 그 모든 것을 다시 규범과 가치를 둘러싼 문명론이나 기성 질서 비판으로 밀어 버렸다(Brunner 2020, 151-185).

그래도 갈통 평화론의 기본 개념은 갈등과 폭력인데, 그것은 각기 다시 셋으로 나뉜다. 갈통은 갈등을 ‘행위’와 ‘태도’와 ‘모순’의 삼각형으로 나누었고, 폭력을 그것과 연관해 직접적, 구조적, 문화적 차원의 삼각형으로 포괄했다.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 형식의 폭력으로 이어지는데 그 폭력들은 갈등의 구조에 그대로 조응한다는 것이다. 갈통에 따르면, “개입을 통한 갈등 전환” 또는 “현실적인 평화로의 길”들도 갈등의 삼각구도에 대응해 평화유지(‘분리’), 평화조성(‘해결’), 평화구축(‘결합’) 등 다시 세 차원으로 구분된다(Galtung 1976; 갈통 2000).⁵⁾ 갈통에게 갈등과 폭력 및 평화의 관계는 그렇게 삼각 구도로 연계되어 있다.

갈통의 평화론은 1970년대에 기본 골격과 내용이 갖추어지지만 변화가 없지 않다. 특히 그가 1990년 ‘문화적 폭력’ 개념을 내세운 뒤에는 그 전의 급진적인 사회체제 비판 보다는 문명론과 갈등전환 이론이 더 중요해졌다(Brunner 2020). 갈통에게서 여러 차원의 삼각형들이 직접 조응하고 체계를 갖춘 것은 1990년 후부터였다.

갈통이 1969년 처음 ‘구조적 폭력’ 개념을 제안했을 때는 ‘직접 폭력’과의

방향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마르크스주의 관점의 욕구 충족 논의를 잠시 초월고는 불교와 이슬람 및 일본-중국식 사회 조화론 등을 주요 대안으로 내세웠다(Galtung 2010). 갈통은 바로 그 다음에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와 인권 등의 가치들도 언급했지만 그것을 자유주의 서구의 전통으로 간주하는 것은 거부했다. 동양 사상과 문화의 대안적 의미 부각은 서양 독자들에게는 여전히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 하지만 평화 사상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정책 대안을 논의할 때 동양 사상으로부터 직접 해결책을 내세우는 것이 유효한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동양 사상과 갈통 평화론의 관계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연구가 더 필요해 보인다. 이를테면, 클라우디아 브룬너(Brunner 2020, 151)는 갈통이 동양 사상을 자주 언급하며 유럽중심주의를 극복하려고 했지만 그의 인식들은 여전히 이분법의 본질주의에 갇힌 채 동양에 대해 비의(祕儀)적인 태도를 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 5) 1976년 갈통이 처음 그것을 소개했을 때 사용한 용어, 분리(dissociation)와 결합(association)은 1969년 예바-쟁하스, 1974년 디터 쟁하스에 의해 이미 소개되었다(Eva Senghaas 1969, 50-56; Senghaas 1974, 177).

차이를 강조했다. ‘직접 폭력’이 타자에게 물리적 피해를 가하는 행위라면, 그것은 너무 협소한 개념이라고 비판했다. 그에게 있어서 폭력은 “실제 이루어지는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실현이 잠재적 실현가능성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도록 영향을 받을 때 존재”(Galtung 1969, 168)했다.⁶⁾ 갈통은 사적으로 행사되는 물리적 폭력을 무시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갈통이 보기에 물리적인 ‘직접 폭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직접 드러나지 않는 폭력이었다. 갈통에게 ‘구조적 폭력’은 “잠재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 사이의 거리를 증가시키는 근본적 원인이자 그 거리를 줄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원인”이었다(Galtung 1969, 168). 요컨대, 폭력은 인간의 자기실현을 방해하는 보이지 않는 구조로서 도처에 존재한다. 갈통은 ‘구조적 폭력’을 다음과 같이 비유했다. “한 명의 남편이 제 부인을 때리면, 그것은 명백한 사적 폭력의 예다. 하지만 백만 명의 남편들이 각기 제 부인을 무지에 가두면 그것은 ‘구조적 폭력’이다”(Galtung 1969, 171).”

결국, 갈통은 가능성에 비해 실제 현실이 모자란 삶을 살게 되는 원인을 구조라고 보았고 그것을 곧장 ‘구조적 폭력’이라고 불렀다. 보로베이는 “폭력은 사람이 달리 살았다면 더 나았을 그런 좋지 않은 삶을 살 때 발생한다”고 갈통의 폭력관을 요약했다(Vorobej 2016, 64). 현실 삶의 조건은 달라질 수 있고 더 나아질 수 있음에도 그렇지 못해서 피해와 희생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모두 그리고 곧장 폭력인 셈이다. 갈통은 ‘구조적 폭력’ 개념으로 삶의 실제 현실과 도덕적 당위의 차이를 지시하지는 않았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한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수준과 관련해서 벌어지는 실제 현실과 가능성의 간격이다(Schotte 2020, 156-157). 그것은 분명 인간들에 의해 발생하지만 익명의 구조나 체제로 작동하기에 책임과 권한을 지닌 개인을 폭력의 수행 주체로 특정할 수 없다. 즉 ‘구조적 폭력’은 비가시성이 특징이다. 마르쿠스 슈로어(Markus Schroer 2004, 151-173)는 그것을 “사회적으로 생산된 폭력”이라고 규정하며 ‘얼굴 없는 폭력’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당연히 그와 같은 폭력의 해결은 총체적인 체제 극복을 의미하는 ‘해방’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전제되었다. 그것이 모든 종류의 불의를 포함하니 너무 모호하다

6) 갈통의 논문 “Violence, Peace and Peace Research”은 아직 국역본이 발간되지 않았다. 필자는 영어 원문 외에 ‘봄내시민평화센터’의 김복기 선생님이 한국어로 옮긴 번역본을 참고했다. 번역 원고를 보내주신 김복기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를 보낸다.

는 것을 갈통도 모르지 않았다. 갈통은 ‘구조적 폭력’은 사실 ‘불평등’이라고 자주 언급했다. “폭력은 구조 안에 구축되어 불평등한 권력이 되어 결과적으로 불평등한 삶의 기회로 드러난다(Galtung 1969, 171).” 다시 말해, 갈통은 ‘구조적 폭력’의 바탕에는 불평등이 존재한다고 보았고 동시에 불평등이 곧 ‘구조적 폭력’이라고도 보았다. 물론 갈통은 ‘직접 폭력’과 ‘구조적 폭력’의 구분에만 만족하지는 않았고 그것을 인간의 4개 욕구, 즉 생존과 복지, 정체성과 자유의 욕구의 결핍과 연결해 ‘직접 폭력’과 ‘구조적 폭력’의 유형을 체계화했다(Galtung 1975; Galtung 1980; Galtung 1990; 갈통 2000, 414).

하지만 ‘삼각형 평화학자’ 갈통이 갈등을 삼각형으로 이해하고 갈등 전환을 삼각 구도로 설정하면서 폭력을 둘로 구분한 채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그는 1990년 논문에서 ‘문화적 폭력’ 개념을 제시해 ‘직접 폭력’과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문화 요인들을 포괄했다. ‘구조적 폭력’ 개념과 관점은 이제 ‘폭력의 삼각형’ 속에서 이해가 가능해졌다. 갈통은 폭력의 삼각형을 세우기도 하고 뒤집기도 했다.

이 삼각형에서 ‘직접 폭력’과 ‘구조적 폭력’을 아래로 내려 세우면, ‘문화적 폭력’이 그 둘을 정당화하는 듯하다. 반면 ‘직접 폭력’을 맨 위로 두고 삼각형을 세우면 ‘직접 폭력’에 대한 구조적 원천과 문화적 원천이라는 이미지가 얻어진다(갈통 2000, 419).

사실 갈통은 1990년 ‘문화적 폭력’을 처음 소개할 때부터 ‘폭력의 삼각형’을 위와 아래로 뒤집으면서 삼자가 일방적이고 단선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작용하는 역동적 관계에 놓여 있음을 보였다(Galtung 1990, 294). 갈통에 따르면, ‘직접 폭력’은 ‘구조적 폭력’이나 ‘문화적 폭력’의 결과만이 아니라 원인이 되기도 한다. 물리적 폭력에 대한 개인적 기억과 집단적 기억문화는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이 만들어지는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갈통이 폭력의 세 차원을 계속 연결시켰지만 ‘직접 폭력’과 나머지 두 폭력의 차이는 여전히 중요하다. 그것은 무엇보다 가시성 여부다. 갈통은 ‘직접 폭력’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항상 그것의 의미를 제한했다. ‘직접 폭력’보다는 그것의 “뿌리”이자 “원인”이 중요했다(Galtung 2004). 그리하여 갈통은 그것을 바다의 ‘빙산’ 이미지로 보충했다(갈통 2000, 574). 갈통은 ‘직접 폭력’이 시야에 잡히는 ‘일각’일 뿐이고 그 밑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빙산’인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이 심연에 놓여 있다고 그렸다. 오스트리아 평화학자 볼프강 디트리히는 그것을 “폭력의 빙산”이라고 이름을 붙였다(Dietrich 1998, 169; Dietrich 2002, 46-49). 수면 위에 보이는 ‘일각’, 즉 ‘직접 폭력’이 사람들의 눈을 끄는 것은 사실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수면 아래에 놓여 있는 거대한 덩어리다. 갈통이 보기에 “숨겨져 있는” 더 중요한 폭력 원인은 어쨌든 ‘구조’였다(Galtung 2010).

‘직접 폭력’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갈통의 비유적 표현을 뒤집어 말하면,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은 ‘일각의 빙산’이다. ‘빙산’의 몸통은 드러난 ‘일각’보다 더 심대하고 눈에 보이는 ‘일각’이 사라져도 또 새로운 ‘일각’을 올리는 역할을 한다(Dietrich 1998, 169; Dietrich 2002, 46). 갈통에게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일각’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고 숨겨진 ‘빙산’이었다. 그런데 빙산의 비유는 위의 삼각형 비유와 그 의미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폭력의 삼각형’에 대한 오해와 혼란이 생겨나는 이유이기도 하다. 빙산의 비유에 따르면, ‘직접 폭력’의 의미와 중요성은 현격히 줄어들고 구조와 문화는 더욱 과잉 해석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갈통의 생각을 더 정확히 드러내는 것임은 분명했다.

갈통은 비유와 차용을 계속했다. 그는 세 가지 폭력이 서로 다른 시간대를 지남을 강조했다. 갈통은 “‘직접 폭력’은 사건이고, ‘구조적 폭력’은 오르내림이 있는 과정이고, ‘문화적 폭력’은 오랜 기간 동안 본질적으로 같은 것으로 남아 있으면서 기본적인 문화의 점진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불변의 것이자 영구적인 것이다.”라고 말했다(갈통 2000, 419-420: 필자의 번역 수정). 갈통은 그것을 다시 프랑스 아날학파의 용어를 빌어 ‘사건’, ‘주기국면’, ‘장기지속’으로 설명했다. 이런 식의 설명은 결국 ‘사건’, 즉 ‘직접 폭력’을 뒤로 밀고 나머지 둘의 의미를 부각하기 위함이다. 이미 알려졌다듯이, 아날학파의 실제 역사 서술에서 ‘주기국면’과 ‘장기지속’은 ‘사건’과 거의 관련이 없다. 갈통은 점점 더 ‘직접 폭력’을 뒤로 물렸을 뿐 아니라 ‘구조적 폭력’과 ‘직접 폭력’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세밀히 논의할 생각이 없었다. 왜냐하면 ‘일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각 밑의 ‘빙산’ 자체가 중요했기 때문이다.

폭력 인식은 평화연구를 규정했다. 애초 ‘직접 폭력’에 대비해 ‘구조적 폭력’을 내세웠을 때 갈통은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를 그것의 극복 전망과 연결시켰다. 하지만 1990년 폭력의 삼각형을 제시한 뒤 그는 그것의 극복

전망을 다시 세 가지, 즉 ‘직접 평화’, ‘구조적 평화’, ‘문화적 평화’ 개념으로 제시했다. 폭력 개념이 변형되고 확장된 만큼 평화 개념도 변형되고 확장되었던 것이다. “평화는 직접 평화와 구조적 평화와 문화적 평화가 합쳐진 것이다(갈통 2000, 561)” 물론 갈통은 그것이 정적이라는 단점을 가졌기에 동적인 평화 개념을 보충했다. 애초 폭력이 갈등에서 기인했고, 폭력의 세 차원을 극복하는 평화 전망이 제시되었지만 갈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닌 이상 갈등을 이성적이고 창조적으로 처리하는 능력이 평화가 되는 것이다. 그 평화적인 갈등 전환 행위들은 다시 ‘평화문화’와 ‘평화구조’를 유발한다. 갈통의 평화론은 폭력관에서 비롯되었고 폭력은 갈등 구조와 연관되기에 평화 개념은 확장되기도 하지만 다원화되기도 했다. 특히 그의 평화관은 세 가지 유형의 폭력 극복과 연결된 이상사회론으로 귀결되지 않았고, 오히려 여러 방식의 갈등 해결과 전환 논의로 이어져 평화 다원주의 논의와 만난다. 1969년의 개념에 간혀 갈통의 평화론을 ‘소극적 평화’나 ‘적극적 평화’나 하는 이분법에만 가두어 놓을 이유는 없다.

갈통은 정적인 상태를 평화로 의미한 것이 아니다. 그는 갈등 조정과 전환이 창의적인 활동임과 동시에 성찰과 신중함에 기초한 가역적인 작업이라고 보았다. 갈통은 이미 오래 전부터 평화를 엔트로피의 증대와 연결시켰다 (Galtung 1975, 47-75).

전쟁과 폭력의 엔트로피가 있지만 평화의 엔트로피도 존재한다. 나는 가능한 한 서로 긴밀히 연결된 극도로 다양하고 혼란스러운 구조들-그리고 문화들(!)-이 결정적인 전투를 준비하느라 엔트로피는 낮고 에너지는 높은 간명한 구조들과 문화들보다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를 훨씬 더 잘 실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평화의 엔트로피는 손상되지 않거나 향상된 삶을 전제로 하지만 복잡한 자아의 정신적 엔트로피와 아주 복잡한 사회 및 세계적 혼란의 사회적 엔트로피를 높일 수 있도록 조직되어 있기 때문이다. 평화의 엔트로피는 죽음과 폭력의 물리적 정신적 엔트로피를 막는 장벽이다. 자연에는 심오한 생태 다양성과 공생에 기초를 둔 성숙한 생태계 형식의 엔트로피가 있다. 그것 또한 엔트로피가 높다 (갈통 2000, 577: 필자의 수정 번역).

그렇게 보면 평화 다원주의, 즉 ‘평화들’의 관점도 갈통의 평화론에 이미 내재해 있다. 갈통은 단일하고 명료한 사회 구조나 문화가 아니라 다원적 사

회의 복합적 공생과 조정 활동들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갈통에게 평화는 단순히 파괴적 현상의 부재, 즉 ‘폭력의 부재’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롭고 협력하는 관계”이기도 했다(Schmidt 2001, 510). 그것은 정적으로 규정될 수 없다. 갈통에게 평화는 문화와 지역의 상황에 따라 항상 열려 있고 수정 가능하며 끝이 없는 발견 과정이다.

문제는 그가 갈등 전환 작업의 복합성과 가역성을 주목한 점이나(Debiel 2002), 개발과 문명 이론 및 우주론과 연결시켜 ‘평화로 가는 여러 길들’을 제시한 공로와는 별도로 그의 핵심 개념인 ‘구조적 폭력’이 비판을 견뎌낼 수 있느냐이다. ‘구조적 폭력’ 개념이 갈통의 평화론이 갖고 있는 여타 장점과 의미의 확산을 막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야 할 때다.

Ⅲ. 비판

1. 모호하고 무용하다

먼저 ‘구조적 폭력’ 개념은 모호해서 학문의 분석 범주로 활용하기 어렵다. 삶의 가능성과 현실 상태의 차이를 ‘구조적 폭력’이라고 정의하면, ‘구조적 폭력’이 아닌 것이 드물다(Narr 1974, 23-24; Keane 1996, 66; Baberowski 2015, 111). 삶의 더 나은 가능성을 제약하거나 방해해서 현실의 고통이나 비참을 만드는 것은 꼭 구조만이 아니다. 개인과 가족, 주변인들의 선택과 상황이 삶의 가능성을 제약하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다. 특별한 재능과 노력, 우연한 기회나 행운이 원하는 삶을 가능케도 하고 그 반대의 경우 삶의 가능성과 현실 상태의 차이가 심각히 커지기도 한다. 삶의 현실 상황과 가능성 사이의 간극을 ‘구조적 폭력’이라고 설정하면, 사실 고통과 피해가 발생하는 모든 사회 구조와 상황은 ‘폭력’이다. 이상적인 사회가 아니라면, 사회 구성원들의 다수는 자신의 잠재적 욕구 충족과 현실 상황을 같다고 보지 않는다. 심지어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라고 하더라도 개인 삶의 조건과 방식이 다 같을 수가 없고,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삶의 조건들에서도 실제 삶의 과정과 현실에는 무수한 변수들이 존재한다. 욕구 충족의 가능성과 현실 사이의 간극에는 여러 원인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모두 구조라고 볼 수가 없다.

게다가 그 간극이 없어진다고 현실 삶에서 폭력이 사라지는 것은 전혀 아니다. 뒤에서 살피겠지만 폭력은 인간 삶의 상수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구조적 폭력’이 불평등한 권력관계와 삶의 기회 차별 또는 “자원 결정권의 불평등”(Galtung 1975, 12)을 의미한다고 하더라도 그 개념이 위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 그렇게 전제하면 어떤 사회든 폭력이 만연하다고 봐야 하며 폭력을 극복한 사회, 즉 ‘적극적 평화’란 불가능하다. 그 말은 삶의 가능성이 현실에서 구현되는 상황에 대한 갈망을 갖지 말자는 말도 아니고 사회 불평등이나 권력에 의한 불의가 문제가 아니라는 말도 전혀 아니다. 정반대다. 오히려 갈망을 살리고 문제를 직시하려면 명료한 개념과 용어들에 기초해야 한다. 삶의 기회 제한과 차별, 권력과 구속의 문제를 폭력과 직접 연결시킬 수 없다(Schotte 2020, 159-160; Imbusch 2002, 27; Braun 2021, 14; Daase 1996, 467-468). 여러 비인도적인 현상들이 유사하거나 연관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들을 모두 하나의 개념으로 묶는 것은 학문적으로 정당하지 못하고 정치적으로도 현명하지 못하다(Schotte 2020, 159).

구조적 폭력은 정당성 또는 적법성에 기초해 위임된 권력 사용(potestas)과 광포하고 거친 폭력성(violentia) 사이의 구분을 지우는 개념이다(Braun 2021, 14; Imbusch 2000, 31-32; Imbusch 2005, 26-27). 갈통이 말한 ‘구조적 폭력’은 후자를 ‘일각’이라며 과소평가하거나 사실상 지워 놓고는 전자의 의미, 즉 구조적으로 규정된 비대칭적 권력 관계를 지칭한다. 권력이 부당하게 악용되는 경우는 너무도 많다. 권력의 정당성 여부는 한 사회에서 끊임없이 되묻고 승인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권력을 곧장 폭력으로 둔갑할 수는 없다.

게다가 권력이 곧장 폭력이 아닌 만큼 지배는 물리적 폭력사용에 의지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그렇기에 직접 폭력이 아니라면 폭력 개념을 절제해야 권력 비판과 지배 분석이 더 세밀해지고 더 급진적일 수 있다. 정당하거나 정당하지는 않지만 적법하다고 승인된 권력 관계와 물리적 폭력의 차이는 매우 중요하다. ‘구조적 폭력’은 바로 그 차이들을 지운다(Hoebel and Knöbl 2019, 30-31).

한편 갈통이 말한 불평등도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지위와 권능, 자격을 가지면서 생긴 위계질서를 의미한다면 그것이 곧장 살상이나 죽음을 초래하지는 않는다(Baberowski 2015, 121-123). 현대 사회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로 권력과 자원의 불평등에 기초해 있다. 권력 관계는 비대칭과 불평등에 기초해 있다. 모두가 동일한 권력을 갖고 자원 분배결정에 참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 불평등 권력이 불의나 차별로 귀결되지 않도록 여러 형식의 정치 제도와 사회관계가 존재하는 것이다.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권력과 권한을 위임하는 과정이 있고, 또 참여와 공동 결정이 필요하면 그것을 보충하는 제도도 따로 있다. 결정권을 타인에게 위임하는 것은 오히려 삶의 부담을 줄여 다른 기회와 능력을 찾고 발휘하는데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다 (Popitz 1992, 20; Rieckenberg 2008, 172-177). 불평등한 권력과 자원 결정 관계가 곤장 살상과 고통을 초래하지는 않는다. 불평등의 현실을 비판하는 것과 그것을 폭력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게다가 불평등이 폭력을 낳기보다는 오히려 토론을 낳거나 연대를 이끌고 정치적 조직화를 통한 비판과 개선을 이끄는 경우도 많다. 또 한 사회 구조와 체제 바깥에 내던져진 ‘잉여’ 인간들에 대해서도 더 많이 논의해야 한다. 그들은 ‘구조적 폭력’의 그 구조 바깥에 있으면서, 동시에 구조 안에서 작은 권력과 미미한 자원이라도 향유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구조와 구조 안에서의 불평등을 오히려 생존의 안전망으로 여기도록 만든다(Baberowski 2015, 121-122; Braun 2021, 16). 불평등과 비대칭 권력관계도 때로는 그것이 없을 때보다 더 나은 안전과 자유를 보장해주기도 한다.

결국 ‘구조적 폭력’ 개념은 모든 형태의 사회적 불평등과 수탈, 욕구 충족의 좌절 등을 무차별적으로 포괄하기에 분석적 날카로움을 잃어버렸다 (Rieckenberg 2008, 175-177). 갈통의 폭력 개념은 평화 개념과 직결되기에 앞의 것이 지닌 문제는 뒤의 것으로 직접 연결된다. ‘적극적 평화’ 개념은 폭력 개념의 무차별적 확대에 기초한 것이기에 그것 또한 유용하다고 보기 어렵다(Schotte 2020, 157-159; Daase 1996, 469-471). ‘적극적 평화’는 모든 종류의 폭력 부재를 뜻하는데 그것은 망상이거나 이상향이다. 갈통 스스로 그 개념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지만 점차 자주 사용하지 않았고, 오히려 ‘갈등전환’과 문명론에 집중한 것도 같은 이유다. 평화연구는 망상적 유토피아론이나 구원 이데올로기에 물든 이상사회론으로 빠지지 않아야 학문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학문적 개념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그것은 연구하는 사건과 현상 또는 분석하는 주제와 대상을 밝히고 설명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개념이

연구 대상의 유형과 맥락을 이해하도록 돕고 연구 주제의 특질과 의미를 드러내는데 유용하려면 최소한 명료하고 포괄 범위가 한정적이어야 한다(Nunner-Winkler 2004, 27-30, 55). 그렇지 않은 개념은 학문적 인식과 토론에 혼란과 오해를 초래할 뿐 아니라 분석과 설명과는 무관한 정치 투쟁 개념 내지 선전용 용어에 불과할 수 있다(Schotte 2020, 161; Baberowski 2015, 114; Daase 1996, 471).

갈통의 추종자들은 ‘구조적 폭력’ 개념이 1970년대의 급진화된 폭력 저항과 좌파 테러주의의 정당화에 기여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들은 갈통이 일찍부터 간디와 비폭력에 관심을 가졌던 사실과 폭력을 수단으로 한 저항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근거로 든다(Schmidt 2001, 512; Sabine 2021, 23-24). 틀리지 않다.

그런데 사회 문제와 구조 결합에서 기인하거나 그것과 연관된 모든 고통과 살상을 ‘폭력’으로 규정하면 정치적 동원과 사회적 결집에 도움이 될 수는 있다. 체제의 결합과 문제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그 체제에 맞서 전면 대결을 벌이고 있는 비판가들에게 ‘폭력’이라는 용어는 구조의 심각한 결합 내지 근본적 한계를 지시하는 것으로 환영받았다. 특정 정치 지배나 사회 제도, 또는 지배 양식이나 기구만이 아니라 기아와 빈곤, 불의와 불평등,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가부장제, 특히 현존 세계 경제구조 자체가 ‘구조적 폭력’이고 그것을 전면 극복해 ‘적극적 평화’, 즉 사실상의 ‘영구 평화’를 구현하는 과제가 명료해졌기 때문이다(Baberowski 2015, 110, 114). 갈통이 의미를 낳춘 ‘소극적 평화’는 기성 질서나 체제 유지와 연결되었다는 인식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Senghaas 1974, 173-175). ‘구조적 폭력’ 개념은 특정 시기와 사회에서 사회비판의 기능을 행사했으며 지금도 역시 그렇다. 하지만 그것에 의지해서 개념의 모호성과 분석의 무용성에 눈을 감아서는 곤란하다.⁷⁾

7) 갈통의 옹호자들은 그 비판을 신실증주의나 경험주의 지향이라며 딱지를 붙이는 방식으로 대했다. 그들은 ‘구조적 폭력’ 개념이 지난 현실 비판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그 개념을 옹호했다. 또는 그 개념이 평화연구를 현존 국제관계의 주석이 아니라 국제질서와 사회관계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도록 전환시켰음을 부각하는 것 외에는 제대로 응수하지 못했다(Schmidt 2001, 512-517; Schmidt 2002, 16-21; Sabine 2021).

2. 구조는 폭력이 아니다

구조는 ‘아직’ 폭력이 아니다. 구조가 폭력이 아니라는 말은 구조가 폭력의 원인이나 발생 조건이 될 수 있음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갈통에게 구조는 폭력의 조건이나 원인(만)이 아니라 폭력 그 자체였다. 사실 ‘구조적 폭력’과 관련해 가장 흔한 오해는 그것이 폭력의 조건이나 배경을 지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구조적 폭력’은 폭력의 구조적 조건(의 존재)을 규정(또는 지시)하는 것으로 오해되었기에 긍정적으로 수용되는데 유리했다. 폭력 상황과 행위 너머에 그것을 유발하고 유인한 근본적인 원인과 요인, 조건과 배경들이 더 있을 것이라는 가정은 불필요하지 않다.

만약 갈통이 구조를 폭력의 조건이나 원인으로만 간주했다면 그것은 그다지 새로운 것이 없었다. 이를테면, 근대화 이론이나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회학이나 역사학에서 전쟁이나 사회 갈등 또는 폭력 사건을 다룰 때 항상 사회 구조나 관계는 그것의 조건이나 배경으로 여겨졌다(Baberowski 2015, 115-117). 갈통은 그것을 넘어서 구조 자체를 사적 폭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미를 지닌 폭력이라고 규정했다(Schotte 2020, 157; Rieckenberg 2008, 173). 그것이 바로 문제였다. 갈통에게 구조는 ‘이미’ 폭력인 셈이다.

즉, 갈통은 마치 사적인 ‘직접 폭력’처럼 구조가 인간에게 직접 물리적 손상과 침해 및 고통을 입히는 것으로 주장했다. ‘구조적 폭력’의 경우 폭력의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 구조, 즉 “불평등한 권력관계와 그로 인한 불평등한 삶의 기회” 자체가 상해를 입히기 때문이다. ‘구조적 폭력’ 개념은 폭력 가해 주체나 행위 과정을 지우고 물리적 희생자 내지 피해자들을 내세우고 그것이 그 사회 구성원들의 욕구 실현의 잠재적 정도와 현실적 구현의 차이에서 비롯됨을 부각했다. 그 차이가 바로 ‘구조’라고 불렀기에 구조는 사적 폭력의 가해 행위자처럼 ‘직접 폭력’의 주체로 간주되었다. 물론 구조는 ‘직접 폭력’의 가해자처럼 인지와 감정의 주체, 또는 선택과 결정을 수행하는 주체가 아니다. 가해자가 타자에게 상해를 입힐 동기나 의도가 없지만, 특정 행위의 결과로 피해자와 희생자가 발생하는 경우처럼 구조는 의도나 동기의 주체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상해와 고통 또는 죽음을 낳는다는 것이다. 갈통의 ‘구조적 폭력’은 특정 행위의 결과로 환원할 수 없고 구조가 초래한 인간의 상해와 피해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갈통에게 있어 폭

력은 구조에 내재해 있고 동시에 구조로 발현한다. 그런 한 ‘구조적 폭력’은 물리적 폭력과 달리 특정 행위가 아니라 익명의 구조를 감내하거나 수용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부작위조차 폭력의 일부가 되어 버린다.

그런데 갈통은 구조가 폭력 자체라고 하면서도 항상 폭력의 원인이나 조건임을 암시하기도 했다. 폭력 개념을 확대한 배경에 대한 질문을 받고 갈통은 “모든 것은 ‘직접 폭력’에서 그리고 그 원인을 계속 따지다 보니 생겨났다.”고 밝혔다(Galtung 2010). 구조나 문화가 물리적 폭력의 배경 또는 원인일 수 있음을 부정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그 연관관계는 복잡하다. 구조나 문화가 불평등이나 차별을 넘어 갈등과 적대 그리고 폭력을 낳는 과정은 시기와 사회, 상황과 과정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세계 자본주의 체제와 일국 경제체제의 불균등과 불평등이 곧장 국가 간 전쟁이나 국가폭력을 낳는 것은 아니다. 반유대주의나 가부장제, 반공주의나 공산주의 체제, 군사주의 등이 직접 홀로코스트나 성폭력, 정치폭력과 대량살상, 전쟁의 원인이라면 지구 모든 곳이 늘 피바다와 통곡의 골짜기일 것이다. 반유대주의 없이 홀로코스트를 이해할 수 없고, 가부장제 없이 성폭력을 설명할 수 없다. 반공주의 이데올로기 없이 소위 ‘자유진영’의 인권유린을 해명할 수 없듯이, 공산주의 지배구조를 빼고 소위 ‘평화진영’의 국가폭력에 접근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군사주의와 전쟁이 깊은 연루가 있음을 부정할 사람은 없다.

문제는 생각과 행위의 간격이다. 구조와 실천의 차이다. 반유대주의가 어떤 상황에서 유대인에 대한 물리적 폭력으로 치닫는지, 여성 혐오가 언제 어떻게 성폭력으로 귀결되는지, 군사주의가 전쟁에 어떻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지가 중요하다(Hoebel and Knöbl 2019, 31-32). 구조와 행위 사이의 차이와 간격을 규명하는 것이 폭력과 평화 연구의 길이다. 구조와 행위의 복잡한 간격 및 문화와 실천의 상당한 차이를 지우거나 단순하게 만드는 것은 오히려 학문적 분석이 극복해야 할 지점이다. 갈통은 ‘구조적 폭력’을 내세워 엉뚱한 길로 빠져들었다.

게다가 일상의 관점에서 보면 구조는 폭력을 조장하기도 하지만 때로 폭력을 억제하기도 한다. 구조와 체제는 최소한의 사회적 약속과 공동체의 상호 신뢰를 전제하는 것이다. 그것은 사회적 신뢰의 근간을 파괴하는 무차별적이고 자의적인 일상적 폭력 발현을 상대적으로 통제하지 않고는 유지될 수 없다. 오히려 사회 구조와 정치 체제가 해체되면서 폭력은 폭발적으로 상

승한다. 갈통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구조와 질서가 안전과 자유의 근간, 심지어 평화의 전제가 될 수도 있다.⁸⁾ 그렇기에 구조는 아직 또는 심지어 ‘이미’ 폭력이 아니다. 구조의 현실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인적 피해를 유발하더라도 그것을 폭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실제 현실에 존재하는 더 많은 ‘직접 폭력’에 대한 관심을 방기하고 분석을 방해할 수 있다. 그것은 결국 그 구조의 분석과 극복에도 무용할 뿐이다. 폭력의 배경과 원인으로 사회 구조를 분석하고 해명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고 필요하다. ‘구조적 폭력’ 개념을 폐기하거나 제한해야 할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구조와 폭력의 연관성을 더 잘 밝히기 위함이다(Schotte 2020, 160-162).

3. 폭력은 행위다

폭력은 행위자가 필요하다. 폭력은 가해 행위를 통해 상해와 죽음을 낳는 가해자가 필요하고, 상해를 입고 고통과 비탄을 겪는 피해자가 필요하다. ‘구조적 폭력’은 폭력의 가장 기본적인 그 전제를 부정했다. 구조는 행위하지 않는다. 독일어에서 폭력은 이미 어원적으로도 행위자의 중요성을 전제한다. 폭력(Gewalt)은 폭력 행위자의 지배 권력을 드러내는 용어로 탄생했다(Lindenberg 1995, 9-10).⁹⁾

그런데 갈통은 인도유럽어족 아닌 언어들에 의지해 행위 주체가 없는 폭력을 설명했다. 그는 주어가 없는 문장의 경우처럼 폭력도 수행 주체를 전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폭력을 논의할 때 행위 주체의 의도와 능력을 따지는 사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도는 없지만 죽음과 불구를 만드는” 것, 즉 ‘구조’에 주목했다. ‘구조적 폭력’은 피해자와 희생

8) 얀-필립 린츠마(2008, 34-35)는 정부가 갑자기 2주 뒤 공권력을 해체하겠다고 선언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물었다. 폭력이 난무하거나, 최소한 불안과 불신이 만연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오랫동안 억제하고 통제했던 공격성이나 자의성이 폭발하면 물리적 힘이 약하거나 조직이나 자산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폭력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그것은 구조나 질서가 오히려 폭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함축한다. 요컨대, 구조와 폭력의 관계는 단선적으로 논하기 어렵다.

9) 독일어에서는 애초 폭력(Gewalt)이 “힘을 갖다”와 “권력을 갖다”에서 기원했다. “신의 폭력”, “악마의 폭력”, “사랑의 폭력”. “자연폭력”, “물의 폭력”, “제후의 폭력”은 모두 폭력 자리에 ‘힘’이나 ‘권력’을 대체하면 의미가 통한다. 지금도 남아 있는 공권력(Staatsgewalt)도 바로 이런 기원과 관련이 있다. 영어와는 달리 독일어의 ‘폭력’이 오랫동안 ‘권력’의 의미 또한 함축하고 있었던 이유다.

자들에 기초했지만 정작 가해자들은 지웠다. 그것은 가해 행위와 피해나 고통의 인과 관계를 따지지 않고 피해와 희생에 기초해 곤장 구조를 문제 삼는 방식으로 성립된 개념이다. 갈통은 직접 인과관계를 다루지 않고 유형이나 분류로 대신했다. 그러나 상해와 죽음을 초래하는 것이 어떤 구조인지, 거기에 어떤 행위 과정이 있는지는 더 따져봐야 한다. 설사 그것이 죽음을 초래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해도 구체적인 행위 과정의 (존재) 여부는 더 살펴야 한다. 특정 죽음과 상해는 구조가 작동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구조를 해체하면서 발생할 수도 있고, 구조 바깥의 재난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해자와 가해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데 폭력이라고 할 수는 없다. 자연재해가 아닌 경우, 즉 공해와 환경파괴로 인한 죽음과 고통은 ‘구조적 재난’일 수 있고, 경제 공황과 실업, 빈곤으로 인한 삶의 위기도 ‘구조적 위험’일 수 있지만 폭력이라고 할 수는 없다. 환경 재앙이든 경제 위기든 생명의 위협이나 상해의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구난하지 않거나 재앙과 위기를 실제 죽음이나 상해로 초래한 행위자들은 항상 실제 권력과 권한을 지닌 사람들이다. ‘구조적 폭력’은 바로 그런 가해 행위자들을 숨기는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 특정 기업의 노동자들이 산업 재해로 사망했다면 그것은 구조가 폭력이어서가 아니라 기업의 책임자들이 안전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가해자나 책임자의 행위를 밝히고 동시에 피해와 희생의 연관관계를 따지는 것은 폭력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들 중 하나다. ‘구조적 폭력’의 관점은 오히려 그것을 뒤로 물린다.

물리적 폭력은 폭력 관계의 당사자들에게 특별하고 고유한 신체 경험과 감정을 갖게 만든다. 폭력 가해자든 피해자든 그것은 신체를 매개로 하는 것이기에 정복과 우월감, 쾌감과 과시욕, 또는 고통과 굴욕, 망연자실 등 심대한 직접 경험과 거대 감정에 휩싸이게 만든다. 반면 ‘구조적 폭력’은 그와 같은 경험세계나 감정의 깊이와 아무 관련이 없다.

갈통이 행위자를 언급할 때도 있다. 갈통은 구조가 사람들에게 특정 행위 양식과 습관을 규정한다고 강조했다. 행위자들은 깊은 숙고나 명료한 의도 없이도 구조가 규정한 대로 행동하거나 또는 그것에 따라 ‘부작위’로 행동한다는 것이다(Galtung 2010). “개인의 의도 보다 더 탄탄”하며 “심층구조”에서 작동하기에 잘 보이지 않는 것이 ‘구조적 폭력’이었다. 1969년이나 1975년과는 달리 1990년대부터 갈통은 “심층구조”나 “심층문화”나 하는 개념을

입에 달았다.¹⁰⁾ 그런데 그것은 폭력에서 행위자를 완전히 제거하는 방식이기도 했다. 흥미롭게도 바로 그 시기에 역사학과 사회학의 폭력 연구는 폭력을 행위와 현상으로 주목하기 시작했다. 같은 시기에 갈통과 폭력사회학 내지 폭력사 연구는 서로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¹¹⁾

먼저 최근의 폭력사회학과 폭력사 연구는 폭력이 무엇보다도 개인 또는 집단들 사이의 사회적 ‘행위’ 형식임에 주목했다. 폭력은 구조가 아니라 사람이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고 사람에 의해 경험되는 것이다(Loetz 2012, 19). 구조 뒤에는 항상 실제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폭력이 순전히 ‘의도’적이고 ‘의식’적인 행위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행위자 스스로 의도하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할 뿐 아니라 통제하지도 못하는 행위나 현상까지를 포괄해야 하는지는 폭력사회학과 폭력사에서 계속 논의되었다(Loetz 2012, 14-15). 가해자의 의도나 이성적 판단을 넘는 비이성적인 상황과 순간도 폭력 행위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명료한 의도나 판단에 기초하지 않은 폭력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행위자들이 없는 신체 상해를 폭력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게다가 폭력은 몸으로 고통을 경험하는 것이다(Lindenberger and Lüdtke 1995, 7; Baberowski 2015, 120). 폭력은 사람의 신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가해 행위이고 신체를 통해 겪는 고통이다. 폭력은 사람과 사람의 구체적 관계를 지시하기에 사랑과 우정과 비슷하지만 -항상은 아니지만 자주- 권력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며 부정적이거나 파괴적인 신체 경험, 즉 고통과 괴로움, 모욕과 상실, 공포와 트라우마 등을 초래한다. 폭력 가해자들은 -다시, 항상은 아니지만 자주- 타인의 몸이나 삶을 지배하면서 쾌감을 갖고 즐기거나 절대 권력 향유의 우월감을 갖는다. 폭력은 행위자들의 권력행사를 통한 상호

10) 갈통은 “심층구조”나 “심층문화”의 중요성을 “명상”을 통해 “숨겨진” 가정이나 편견을 발견하는 것에 비유했다. 그것은 자신의 둘째 부인인 후미의 영향이라고도 밝혔다(Galtung 2010).

11) 역사학에서 폭력사 연구의 발전은 홀로코스트 연구, 그 중에서도 가해자와 가해동조자 연구들과 일상사의 폭력 연구(Lindenberger and Lüdtke 1995)에서 크게 자극을 받았다. 1990년대 전까지 폭력사는 주로 전쟁사, 또는 통계에 의존한 경제사 분석 또는 종교나 정치 사건과 관련 속에서 짧게 분석되었을 뿐이다. 최근의 의미 있는 폭력사 연구 성과로는 프란시스코 로에츠(Loetz 2012)의 근대 스위스의 성폭력 역사와 바베로프스키(Baberowsky 2012)의 스탈린 시대 폭력 연구들을 들 수 있다. 폭력사 연구의 발전에 대해서는 슈만(Schumann 1997)을 참조하라.

작용과 폭력을 통한 신체 경험이 관건인데 ‘구조적 폭력’ 개념은 바로 그 폭력의 핵심 내용을 지워버린다. ‘구조적 폭력’은 구조가 낳은 살상의 추상적 결과를 전제하고 다시 구조를 분석의 중심에 세우기에 폭력의 행위 과정과 신체 경험을 아예 무시한다. 갈통의 ‘직접 폭력’ 개념도 그것을 포괄하지는 못한다.

특히 폭력 경험은 너무나 구체적이어서 다른 것, 즉 ‘구조’나 ‘문화’로 추상되기 어렵다. 다시 말해 물리적 경험이 빠진 폭력, 즉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은 폭력이 아니다. 행위나 현상, 특히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에 주목하면 폭력은 특정 상황에서는 발휘되지 않아도 효과를 발휘한다. ‘직접 폭력’이 가진 상징적 효과 또한 ‘직접 폭력’의 결과이자 과정이다. 이를테면, 가해자들의 근육 과시나 특정 손짓과 몸놀림은 이미 피해자들에게 위협과 공포를 낳는다. ‘구조적 폭력’은 행위의 신체적 성격을 배제하므로 심리적 폭력도 놓친다. 심리적 폭력은 구조와 관련이 없고, 구조적 강제로부터 나오는 억압과도 또 다르다. 그것은 정신적 고통과 위축, 공포를 통해 물리적 폭력 못지 않게 몸을 상하게 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만든다. 심리적 폭력은 피해자의 경험과 결부되어 있다(Baberowski 2015, 125-132). 가해자 없는 심리적 폭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심리적 폭력의 가해는 물리적 폭력과는 달리 “비가시적”인 경우도 있고, 가해 효과가 시차를 두고 발생할 때도 있다.

조롱과 모욕, 위협과 협박, 의심과 무시 등의 가해 행위가 낳은 심적 고통과 상처도 폭력 범주에 포함해야 한다. 고문의 경우는 물리적 폭력이며 동시에 심리적 폭력이기도 하다. 독재 정권은 여러 방식으로 심리적 폭력을 지배의 도구로 활용했다. 공포가 반체제 운동가들이나 주민들 사이에 깊이 내려앉도록 만들었다. 지배나 권력이 곧장 폭력이 아니라 의도를 가진 특정 행위들이 심리적 폭력이다. 행위와 행위의 결과와 영향이 눈에 잘 보이지 않기도 하지만 가해자는 항상 존재한다. 심리적 폭력은 추상적인 구조가 아니라 실제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의 행위와 연관되어 있다. ‘구조적 폭력’은 그런 차원을 드러내지 못한다. ‘직접 폭력’ 개념은 ‘가시적인’ 물리적 폭력만을 의미하기에 심리적 폭력을 배제한다.

요컨대 행위로서의 폭력 관계는 ‘구조적 폭력’이나 ‘문화적 폭력’ 개념으로는 해명은커녕 접근도 불가능하다. 얀 필립 린츠마는 “때리려고 든 손을 가리키는 대신에 판 데를 쳐다보며 ‘구조’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emtsma 1991, 9). 물리적 힘의 행사와 그것으로 인한 고통의 발현을 폭

력으로 인지하는 과정은 전적으로 역사적으로 형성되고 변한다. 그렇기에 모든 곳에서 효과를 발휘하는 폭력의 구조를 정적으로 전제하기는 애초부터 불가능하다. 폭력은 ‘빙산’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폭력이 사회적 행위 양식이기에 항상 행위자들을 전제하면서 동시에 그것은 행위자들의 인지와 해석에 의해서 규정된다. 그렇기에 폭력은 단순히 의도를 가진 고통 유발로 환원될 수 없다. 이를테면, 치과 의사가 환자의 치아를 치료하거나 정형외과 병원이 도수치료를 하면서 환자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지만 누구도 그것을 폭력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운동 선수들이나 극기 훈련 캠프 참가자들의 체력 단련 과정에서 겪는 몸의 고통이나 모욕적 언사로 인한 모멸감, 또는 종교 모임에서 더러 실행하는 절제와 극기 프로그램도 고통을 유발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폭력과 무관하다. 심지어 인류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오랫동안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체벌하거나 가정에서 남편이 동의 없이 제 아내를 강간해도 ‘폭력’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폭력연구가 행위자들의 인지방식과 문화적 상호작용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역사가들에게 폭력은 역사적 행위양식이자 역사적 경험 방식이다. 일상사가 린덴베르거와 알프 루트케는 “폭력 행위와 경험은 역사적 상황과 과정과 분리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Lindenberger and Lüdtke 1995, 7). 이 때 역사적 상황과 과정을 다시 정적인 구조로 이해할 수는 없다. 폭력 상황과 과정은 가해자들과 피해자들의 명확한 구분을 흔들 때도 많고, 규범을 혼란에 빠지게 할 때도 적지 않다. 더 극단적인 폭력이나 살해를 막기 위해 폭력을 행하는 경우도 있고, 폭력의 경계 규범이 불명확한 경우도 많다. 보이지 않는 ‘구조적 폭력’이 따로 존재해 행위하도록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들의 인지와 해석을 통해 폭력이 발생하고 경험되는 것이다.

이런 연구 관점과 결과들은 ‘구조적 폭력’ 논의에서도 중요하다. 갈통이 말한 ‘직접 폭력’과 그것의 구조와 문화의 관계는 바로 위의 논의들로 전환되어야 한다. 폭력은 사회적 역사적 행위양식이자 경험방식이면서 동시에 인지와 해석의 특정 형식이기에 ‘구조’와 ‘문화’와 만난다. 갈통의 개념들이 쉽게 수용된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Loetz 2012, 13). 즉 행위자의 폭력 행위 뒤에는 그것을 가능케 하고 촉진하고 보조하고 규정하는 어떤 또 다른 것이 있을 것이라는 전제였다. 그것의 존재를 ‘구조적 폭력’이라고 추상해서 전제할 것이 아니라 ‘직접 폭력’과 연관시켜 해명해야 한다. 인간이 지닌 폭력

능력과 폭력 대비, 또는 폭력 잠재력과 기회는 인간 삶의 상수로 존재하지만 실제 발현 형식과 현상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역사적 맥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Loetz 2012, 19; Lindenberg and Lüdtke 1995).

4. 전쟁이 사라졌다

‘구조적 폭력’ 개념과 갈등의 평화연구는 전쟁의 중요성을 놓쳤다. 전쟁은 폭력의 특별한 형식이다. 폭력 없는 전쟁이 존재할 수 없다. 1947년 후의 글로벌 냉전도 열전을 품고 있었기에 가능했고, 비교적 무장 갈등이나 분쟁 대결이 덜했던 유럽도 진영 간 적대와 경계의 전선에서 적지 않은 수의 폭력과 살상이 존재했다. 전쟁은 폭력 사용의 과정과 방식이 가장 조직적이면서 동시에 그 결과와 영향이 가장 파국적이다. 평화학에서 전쟁은 중심에 놓일 수밖에 없다. 국제관계 연구에서 발전한 초기 평화학이 바로 그 전쟁연구에서 기원했음은 우연이 아니다.

그런데 갈등에게 전쟁은 ‘직접 폭력’의 한 유형에 불과했다. 갈등의 평화연구에서 전쟁은 연구 주제나 대상에서 점차 사라졌다. 갈등은 평화를 ‘소극’과 ‘적극’으로 기괴하게 구분한 뒤 단순히 전쟁 없는 상태가 평화라고 밀어붙였다. 그러면 평화를 갈망하거나 평화를 연구하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전쟁보다 더 근원적인 ‘구조’에 관심을 갖지 전쟁 같은 ‘사건’에 매달리기가 어렵다. 전쟁에 대한 연구는 기성의 학문 분과인 정치학, 특히 국제관계학이나 역사학과 사회학의 영역으로 남고 정작 평화학은 뒷전으로 물러나는 형국이었다. 폭력이 행위가 아니라 구조가 되면서 정작 평화학의 가장 핵심적인 연구 대상이 사라진 것이다. 평화학에서 전쟁 연구는 사회 비판과 결부된 구조 연구로 전환되었다.

크리스토프 다제도 갈등을 위시한 비판적 평화연구가 전쟁을 소홀히 다루었음을 지적했다(Daase 2002, 83-95). 물론 비판적 평화연구 내에서 전쟁을 연구한 흐름이 전혀 없지는 않다. 다제는 갈등과 함께 비판적 평화연구를 개척한 독일 평화학자들 중에서 전쟁을 연구한 이들을 언급했다(Daase 2002, 85). 함부르크에는 전쟁원인 연구에 집중한 연구단이 있었고, 쟁하스는 냉전기 군비 증강의 역동성을 여러 차원에서 해명했다(Senghaas 1973, 37-53; Senghaas 1974, 37-83). 에케하르트 크리펜도르프(Krippendorff 1972, 23-36;

Krippendorff 2002, 280-282)는 일찍부터 전쟁을 “국가의 의해 조직된 폭력사용”으로 정의하면서 국가형성 과정과 폭력, 특히 전쟁이 긴밀히 결합됨을 부각했고 국가 폭력 사용 제도인 군을 평화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었다. 당시 미국의 평화연구도 전쟁연구와 긴밀히 연결되었다. 이를테면, 미시간 대학의 정치학자이자 평화학자인 데이비드 싱어(J. David Singer 1925-2009)도 평화학에서 전쟁 연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었다. 그는 ‘전쟁 상관성(Correlates of War)’ 프로젝트를 통해 국가 간 전쟁과 내전에 대한 계량 연구를 발전시켰다. 그는 이미 1960년대 초부터 갈통과 친교를 맺고 학문적 교류를 이었다. 그는 1963년 가을부터 오슬로평화연구소에서 1년 동안 연구하고 가르쳤지만 갈통의 평화연구와는 평생 거리를 두었다(Lear 2012, 9). 쿠바혁명에서 베트남 전쟁으로 세계 여러 지역에서 무장 갈등과 전쟁이 그칠 날이 없었기에 전쟁과 분쟁이 평화연구의 핵심 주제가 되는 것은 당연했다.

갈통의 경우는 달랐다. 서독 정치 잡지의 편집자로 이름을 날린 클라우스 코흐는 1970년 갈통의 폭력과 평화 이해에 대해 논평하면서 “자본주의 하의 폭력에 대해 말하려면 자본주의 자체에 대해 말해야 한다.”고 요약했다(Koch 1973, 216). 전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말할 수 있다. ‘자본주의 하의 전쟁에 대해 말하려면 자본주의 자체에 대해 말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전쟁은 평화연구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것이 평화연구에서 얼마나 무익한지는 자명하다. ‘구조적 폭력’과 그것의 극복인 ‘적극적 평화’ 개념을 내세운다고 ‘소극적 평화’의 의미를 무시할 수는 없다. 당시에도 라틴아메리카와 아시아만이 아니라 유럽의 일부 지역과 국가들, 즉 북아일랜드와 키퍼로스에서 무장 대결이 진행 중이었고 그곳에서 이루어져야 할 ‘평화’의 중요성은 전혀 ‘소극적’이지 않았다(Senghaas 1974, 177). 하지만 전쟁과 무력 분쟁에 대한 탐구는 구조와 체제에 대한 질문 앞에서 자주 무력해졌다. ‘소극’과 ‘적극’의 구분으로 평화를 나누는 한 전쟁은 늘 뒷전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사실 평화학에서 전쟁연구는 단순히 전쟁원인 연구가 아니다. 전쟁의 양식과 과정, 전쟁과 사회의 관계, 전쟁 수행 제도인 군과 행위자인 군인들 등 다양한 연구 주제와 쟁점들이 존재한다. 갈통의 ‘구조적 폭력’ 개념은 그와 같은 주제를 다루는데 무용하다(Riekenberg 2008, 174; Daase 2002, 85). 이번 세기 22년 동안에도 전쟁이 없었던 해는 많지 않다. 그새 ‘새로운 전쟁’도 등장했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새로운 위기와 위협을 낳고

있다. 평화연구가 ‘구조적 폭력’ 개념에 간혀 불평등 권력관계를 살필 동안 그 ‘구조’를 깨는 새로운 전쟁의 역동성이 펼쳐지고 있다.

IV. 맺는말

폭력은 ‘정상적인’ 역사적 삶과 사회관계의 이질적 현상이나 변이가 아니다. 그것은 사랑과 우정처럼 인간 삶의 도처에서 발생하고 존재한다. 그 말은 인간 모두가 항상 폭력을 행사한다는 뜻이 아니다. 폭력은 사랑과 우정처럼 삶의 기회와 선택 가능성으로 보편적으로 편재한다. 폭력은 그 상황과 기회가 사랑이나 우정보다 더 순식간에 나타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자주 열려 있다. 그런데 사랑이나 우정과 달리 폭력은 고통을 낳는다. 폭력은 신체와 감각과 관련이 있다는 의미에서 사랑보다는 섹스, 우정보다는 실제 친교 행위들과 더 유사하다. 폭력은 긴장된 감정과 감각을 수반하는 행위이기에 섹스나 친교 행위처럼 실제 행위자들 뿐만 아니라 물리적 시간과 공간 및 환경과 상황에 연결된 소리와 냄새, 색깔과 방향을 지닌다. 폭력이 지닌 행위성과 신체성, 경계초월성과 역동성에 주목해야 한다. 폭력의 성격과 비밀을 알아야 그것을 줄이고 막을 수 있다. ‘구조적 폭력’은 그런 논의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구조적 폭력’에서 폭력 논의가 벗어나야 하는 이유다.

‘구조적 사랑’, ‘구조적 우정’, ‘구조적 섹스’가 없듯이 ‘구조적 폭력’은 없다. 사랑과 우정, 섹스와 친교 행위들은 사회 구조와 문화와 깊이 연루되어 있다. 그렇다고 해도 구조를 행위자들의 특정 관계와 행위와 일치시켜 ‘구조적 xx’라고 부를 수는 없다. 폭력도 마찬가지다. 또 섹스를 ‘물리적 사랑’이라고, 사랑을 ‘구조적 섹스’라고 부를 수도 없다. 행위와 현상에는 그것에 맞는 용어나 개념이 필요하고, 학문의 영역에서는 분석과 이해를 위해 개념의 명료함이 중요하다. ‘구조적 폭력’에 대한 이 글의 핵심 비판은 폭력은 행위자와 행위를 전제하는 현상인데 갈통은 그것을 여타 사회 문제나 현상과 혼합시켜서 개념적 혼란을 불러 일으켰다는 점이다. 갈통처럼 폭력을 정의하면 불의와 불평등, 차별과 소외, 심지어 재난과 사고도 모두 폭력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다.

물론 갈통은 ‘직접 폭력’보다 구조적 상황이 인간의 살상과 고통, 희생과

피해를 더 많이 초래한다는 사실에 주목하도록 만들었다. 갈등은 ‘직접 폭력’ 이상으로 구조적 상황을 규범적으로 비판하고 대결하도록 만들었다. ‘구조적 폭력’ 개념이 지렛대가 되고 ‘적극적 평화’ 개념이 북극성이 되어 비판적 평화연구는 체제 비판과 평화운동의 동력이 되었다. 게다가 그 개념은 서구 사회의 내적 성찰과 ‘제3세계’의 현실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런 의미에서 ‘구조적 폭력’ 개념의 의의를 전부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의의에 매달려 모호한 개념의 문제를 덮어두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지금은 그 개념의 등장과 활용 때와는 모든 면에서 상황이 다르다. 세계의 평화 부재, 즉 폭력과 전쟁 발현 양상은 더 복잡해졌고 폭력에 대한 학문적 성과도 축적되었다. ‘구조적 폭력’이라는 낡은 개념을 고수할 이유가 없다.

‘구조적 폭력’으로 개념을 확대하는 것을 비판하고 폭력을 다시 행위로 한정짓자는 말은 1969년 전의 폭력 이해로 돌아가자는 말이 아니다. 폭력 개념의 축소 내지 한정이 평화 개념을 다시 전쟁이나 ‘직접 폭력’의 부재, 즉 ‘소극적 평화’로 한정하자는 말은 더욱 아니다. 다만 ‘물리적 폭력’ 개념이 폭력 발생의 비가시적 차원을 충분히 포함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구조적 폭력’ 개념이 무조건 지지받을 수는 없다(Hoebel and Knöbl 2019, 32). 가해 의도가 명료하지만 직접 물리적 힘의 행사가 아닌 방식으로 고통을 가하는 여러 행위들, 이를테면 손짓이나 몸짓을 통한 위협과 조롱, 사이버 상의 협박과 모멸 등은 심리적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다. 또 법이나 제도가 명백히 사회적 삶과 일상세계 깊숙이 들어 와 특정 방식의 살상을 유발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그러니 ‘구조적 폭력’ 개념을 폐기하더라도 갈등이 애초 문제 삼았던 ‘직접 폭력’ 개념으로 무조건 회귀할 수는 없다. 다만 ‘직접 폭력’ 개념의 협소함을 지적하며 폭력의 여러 층위와 양상을 살펴 개념의 유연성과 개방성을 찾아 나가는 일과, ‘구조적 폭력’의 낡은 지하 저층에 머물며 그 동안 축적된 폭력 연구의 성과에 눈을 감는 것은 같지 않다.

‘구조적 폭력’ 개념을 포기할 때 비로소 폭력의 심층에 다가갈 수 있다면, 그 개념을 붙들고 있을 이유는 전혀 없다. 폭력사와 폭력사회학의 연구 성과를 받아 평화학도 폭력의 물리적 성격과 특질에 대해 더욱 주목해야 한다. 폭력 행위 뿐 아니라 ‘폭력 공간’과 폭력 상황 및 폭력 행위자들의 상호작용 또는 사회성 등이 중요하다. ‘구조적 폭력’ 개념은 그 모든 것을 포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잘못된 길로 안내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을 인습적으로 계속 사용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은 그 개념이 최소한 폭력의 실재를 이해하고 분석해 평화 형성의 근거를 찾는 작업과는 무관하고 다만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불평등을 분석하는 범주를 지시하는 것으로 의미를 한정해야 한다(Riekenberg 2008, 177). 물론 ‘구조적 폭력’ 개념이 불평등을 분석하는데 얼마나 적절할지도 더 따져봐야 한다(Nunner-Winkler 2004, 45-46).

한편 폭력을 유발하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구조나 요인을 추상적으로나마 묶어두고자 하면 ‘폭력적 구조’ 개념을 활용하는 것은 고려해볼 수 있다. ‘폭력적 구조’는 갈통이 즐겨 쓰는 용어이기도 하다. 구조가 ‘직접 폭력’이 아닌 한 그 개념은 구조가 폭력의 원인이나 배경이 되는 양상을 포착할 수 있다. 특정한 방식의 폭력을 유발하고 유인하고, 촉진하고 조장하는 구조적 요인들을 그 개념으로 지시할 수 있을 것이다. 불평등이나 환경파괴가 죽음과 상해와 관련이 있다면 일단 ‘폭력적 구조’로 그 불평등 현실과 환경재난을 지시할 수 있다. 행위자들과 실제 현상과 과정을 건너뛰고 폭력을 얘기할 수 없기에 ‘폭력적 구조’나 ‘폭력적 문화’의 개념은 때로 유용할 수 있다.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여러 방식의 죽음과 고통을 손쉽게 ‘구조적 폭력’으로 환원하지 않고 ‘폭력적 구조’로 제한할 때 오히려 살상 과정과 고통 야기의 상황이 규명될 수 있다. 이를테면 ‘에피스테메’든 ‘환경위기’이든 그것을 곧장 폭력으로 규정하는 것과 행위자들을 전제하며 연관관계의 복잡성을 감당하는 것은 차이가 크다. 전자가 아니라 후자의 길이 필요하다.

‘구조적 폭력’은 사실 폭력 또는 살상의 일반적 배경이나 먼 원인과 관련 될지는 몰라도 폭력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알려주지 않는다. 폭력을 구조와 직접 연결시키는 것은 그것의 발생 상황과 행위자들의 구체적 맥락을 이탈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폭력을 ‘특정한 사회적 행위 양식’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 폭력의 포괄적인 인과성 문제를 배제하지는 않되 현실적으로 발현되는 폭력 현상과 과정에 더욱 주목해야만 역사적 구체성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폭력이 가해지는 곳에는 항상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다. ‘구조적 폭력’은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사회적 불평등과 권력 관계를 지시하고 피해자를 구조의 희생자로만 보기에 구체적인 인간의 경험과 연관된 폭력 자체에 대해서 어떤 접근도 불가능하게 만든다.

폭력의 비밀을 더 정밀히 밝히려는 이 결론은 평화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게 갑자기 폭력 사건들을 다루는 형사가 되자는 제안이 아니다. 갈통은 ‘구조적 폭력’을 보이지 않는 차원의 폭력이라며 ‘빙산’으로 삼아 바다에 가두었지만, 그 동안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은 ‘일각’이라 불린 그 ‘직접 폭력’의 역동성이었다. ‘구조적 폭력’ 개념은 바로 폭력의 역동성과 행위성에 눈을 뜨게 함으로써 평화로 가는 여러 길들에 대한 논의를 제약했다. ‘빙산’에 갇히지 말고 ‘일각’을 더 살펴야 한다. 그러면 ‘일각’ 안에 바로 ‘빙산’이 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일각’의 다각적 분석을 통해 비로소 ‘구조’도 ‘문화’도 함께 볼 수 있다.

물리적 폭력에 대한 연구가 단순히 현상 분석에 매몰되고 근본 문제인 구조를 비판하지 못한다는 갈통의 전제는 정당하지 않다. 폭력과 평화 연구를 현실 체제와 기성 질서의 정당화나, 근본 비판이냐는 식으로 가를 수도 없다. 전쟁을 포함함 ‘폭력들’의 역사와 현실이 보여주는 행위와 현상, 과정과 상황을 더 면밀히 살피면 다양한 비판과 성찰 지점을 가질 수 있다. 그와 같은 폭력 연구를 통해서야 비로소 인간 삶의 상수로서의 폭력의 비밀이 조금이라도 해명될 것이다. 그래야 폭력행위의 역동성을 제어할 수 있는 문화적 장벽과 정치적 방어 기제들이 제대로 축조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평화들’의 관점이기도 하다. 갈통이 갈등 전환과 문명론을 통해 개척했던 다원주의 관점의 평화론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라도 인습적인 ‘구조적 폭력’론으로부터는 벗어나는 것이 현명하다.

평화는 폭력과 달라 가속 기어 장치를 갖고 있지 못하다. 고장만 자주 난다. 평화가 어떻게 폭력이 가진 역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알기 어렵다. 결국 비폭력적 사회관계의 규범과 삶의 방식이 고사하지 않으려면, 먼저 폭력의 행위 역동성에 대한 다양한 제어 장치들을 고안하는데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통해 점차 평화의 역동성을 찾고 만들어야 할 것이다. 보이지 않는 큰 ‘빙산’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처참한 ‘일각’들을 더 헤치며 살피는 연구 방향이 그것을 보조할 수 있다.

이동기는 강원대 평화학과 교수다. 평화 이론과 사상, 냉전사와 평화사를 연구한다. 대표 저서: 『비밀과 역설: 10개의 키워드로 읽는 독일통일과 평화』(아카넷, 2020), 『현대사 몽타주: 발견과 전복의 역사』(돌베개, 2018)

참고문헌

- 곽귀병. 2019. “총체적 기관 안에서 나타나는 폭력의 미시사회학: 부산 형제복지원 사례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19(2), 191-233.
- 김동진. 2013. “북한 연구에 대한 평화학적 접근.” 『현대북한연구』 16(3), 7-60.
- 김상숙·박은성·임채도·전명혁·한성훈·홍순권. 2019. 『한국현대사와 국가폭력』. 서울: 푸른역사.
- 김학이. 2017. “폭력사회학 이론과 나치 폭력 연구.” 『서양사론』 134호, 251-281.
- 지그문트 바우만. 2013. 정일준 옮김. 『현대성과 홀로코스트』. 서울: 새물결.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형제복지원연구팀. 2021. 『절멸과 갱생 사이: 형제복지원의 사회학』.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박효근. 2014. “생바르텔르미 대학살과 폭력의 역사.” 『서양사론』 123호, 170-199.
- 한나 아렌트. 1999. 김정환 역. 『폭력의 세기』. 고양: 이후.
- 양희영. 2015. “프랑스혁명과 폭력.” 『프랑스사 연구』 32호, 29-53.
- 노르베르트 엘리아스, 2012. 박미애 옮김. 『문명화과정』 1, 2. 파주: 한길사.
- 이동기. 2013. “디터 쟁하스의 평화론: 문명화의 복합구성.” 『Oughtopia. The Journal of Social Paradigm Studies』 28(1), 31-66.
- 이문명 편. 2015. 『폭력이란 무엇인가』. 파주: 아카넷.
- 정천구. 2011. “평화의 두 가지 개념에 관한 논쟁: 적극적 평화와 소극적 평화.” 『서적사회과학논총』 4(1), 39-66.
- 디터 쟁하스. 2016. 김민혜 역. 『지상의 평화를 위하여. 인식과 추측』. 파주: 아카넷.
- 볼프강 조프스키. 2010. 이한우 역. 『폭력사회. 폭력은 인간과 사회를 어떻게 움직이는가』. 파주: 푸른숲.
- “평화교육 관점에서 전쟁을 어떻게 다룰까?” 2021. 『역사와 교육』 20호. 196-244
- 한성훈. 2014. 『가면권력 - 한국전쟁과 학살』. 서울: 후마니타스.
- Baberowski, Jörg. 2015. *Räume der Gewalt*. Frankfurt am Main: Fischer.
- Baberowski, Jörg. 2012. “Einleitung.” Baberowski, Jörg and Gabriele Metzler eds. *Gewalträume. Soziale Ordnungen im Ausnahmezustand*. Frankfurt am Main: Campus.

- Baberowski, Jörg. 2008. "Gewalt verstehen." *Zeithistorische Forschungen/Studies in Contemporary History. Online-Ausgabe* 5(1): 5-17.
- Baberowski, Jörg. 2007. "Kriege in staatsfernen Räumen: Rußland und die Sowjetunion 1905-1950." Beyrau, Dietrich and Michael Hochgeschwender and Dieter Langewieche eds. *Formen des Krieges. Von Antike bis zur Gegenwart*. Paderborn: Ferdinand Schöningh Verlag.
- Boulding, Kenneth E. 1977. "Twelve Friendly Quarrels with Johan Galtung", *Journal of Peace Research* 14(1): 75-86.
- Braun, Andreas. 2021. "Strukturelle Gewalt – ein analytisch überschätzter Begriff." *Zeitschrift für Friedens- und Konfliktforschung* 10: 5-35.
- Brunner, Claudia. 2020. *Epistemische Gewalt. Wissen und Herrschaft in der kolonialen Moderne*. Bielefeld: transcript.
- Collins, Randall. 2008. *Violence: A Micro-sociological Theor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Daase, Christopher. 2002. "Der Krieg und die Friedensforschung – Kleine Polemik zugunsten der Polemologie." Schmidt, Hajo and Uwe Trittman eds. *Kultur und Konflikt. Dialog mit Johan Galtung*. Münster: agenda.
- Daase, Christopher. 1996. "Vom Ruinieren der Begriffe. Zur Kritik der Kritischen Friedensforschung." Meyer, Berthold ed. *Eine Welt oder Chaos*. Frankfurt am Main: Suhrkamp.
- Debiel, Tobias. 2002. "Konflikt und Konfliktbearbeitung: Begriffe und Praxisformen." Schmidt, Hajo and Trittman, Uwe eds. *Kultur und Konflikt. Dialog mit Johan Galtung*. Münster: agenda.
- Dietrich, Wolfgang. 1999. "Kulturelle Gewalt als Mittel und Indikator von Herrschaft im Weltsystem." Gruber, Petra and Klaus Zapotoczky eds. *Globalisierung versus Demokratie? Plädoyer für eine umwelt- und sozialverträgliche Weltordnung*. Frankfurt am Main: Brandes & Apsel.
- Dietrich, Wolfgang. 2002. "Ein Bild wollen wir uns machen - Überlegungen zur kritischen Friedensforschung im 21. Jahrhundert." Schmidt, Hajo and Uwe Trittman eds. *Kultur und Konflikt. Dialog mit Johan Galtung*. Münster:

agenda.

- Eva Senghaas-Knobloch. 1969. *Frieden durch Integration und Assoziation*. Stuttgart: Ernst Klett.
- Galtung, Johan. 1969. "Violence, Peace and Peace Research." *Journal of Peace Research* 6(3): 167-191.
- Galtung, Johan. 1971. "A structural theory of Imperialism." *Journal of Peace Research* 8(2): 81-117.
- Galtung Johan. 1975a. "The specific contribution of peace research to the study of violence typologie."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043128> (최종검색일: 2022/7/25).
- Galtung, Johan. 1975b. "Entropy and the General Therapy of Peace." *Peace: Research - Education - Action. Essays in Peace Research*. Copenhagen: Chr. Ejlers Forlag.
- Galtung, Johan. 1976. "Three realistic Approach to Peace: Peacekeeping, Peacemaking, and Peacebuilding." *Impact of Science on Society*, 1/2. 103-115.
- Galtung, Johan. 1980. "The Basic Needs Approach." <https://www.transcend.org/galtung/papers/The%20Basic%20Needs%20Approach.pdf>(최종검색일: 2022/7/25).
- Galtung, Johan. 1990. "Cultural Violence." *Journal of Peace Research* 27(3): 291-305.
- Galtung, Johan. 2004. "Violence, War, and Their Impact: On Visible and Invisible Effects of Violence." *polylog. Forum for Intercultural Philosophy* 5 (2004). <http://them.polylog.org/5/fgj-en.htm>(최종검색일: 2022.7.15).
- Galtung, Johan. 2010. "Interview mit Johan Galtung." *Wissenschaft und Frieden* 2010/4. <https://wissenschaft-und-frieden.de/artikel/interview-mit-johan-galtung/> (최종검색일: 2022/8/2).
- Gudehus, Christian and Christ, Michaela. 2013. "Vorwort und Einleitung, sowie Gewalt -Begriff und Forschungsprogramm." Gudehus, Christian and Michaela Christ eds. *Gewalt, ein interdisziplinäres Handbuch*, Bd. I-VII.

- Stuttgart: J. B. Metzler.
- Hoebel, Thomas and Wolfgang Knöbl. 2019. *Gewalt erklären! Plädoyer für eine entdeckende Prozesssoziologie*. Hamburg: Hamburger Edition.
- Heitmeyer, Wilhelm and John Hagan eds. 2002. *Internationales Handbuch der Gewaltforschung*. Wiesbaden: Westdeutscher Verlag.
- Imbusch, Peter and Lotta Mayer. 2021. “Analytisch unbrauchbar? Eine Replik auf Andreas Brauns Kritik am Konzept der ‘strukturellen Gewalt’.” *Zeitschrift für Friedens- und Konfliktforschung* 10: 37-43.
- Imbusch, Peter. 2017. “Strukturelle Gewalt. Plädoyer für einen unterschätzten Begriff.” *Mittelweg* 36 26(3): 28-51.
- Imbusch, Peter. 2004. “‘Mainstreamers’ versus ‘Innovateure’ der Gewaltforschung: Eine kuriose Debatte.” Heitmeyer, Wilhelm and Hans-Georg Soeffner eds. *Gewalt. Entwicklungen, Strukturen, Analyseprobleme*. Frankfurt am Main: Suhrkamp.
- Imbusch, Peter. 2000. “Gewalt – Stochern in unübersichtlichem Gelände.” *Mittelweg* 36 9(2): 24-40.
- Imbusch, Peter. “Der Gewaltbegriff.” 2002. Heitmeyer, Wilhelm and John Hagan eds. *Internationales Handbuch der Gewaltforschung*. Wiesbaden: Westdeutscher Verlag.
- Imbusch, Peter. 1999. “Moderne und Postmoderne Perspektiven der Gewalt.” Neckel, Sigward and Schwab-Trapp, Michael eds. *Ordnungen der Gewalt. Beiträge zu einer politischen Soziologie der Gewalt und des Krieges*. Opladen: Leske Budrich Verlag.
- Jaberg, Sabine. 2021. “Johan Galtungs weites Verständnis von Frieden und Gewalt – eine Grundsteinlegung für die Friedensforschung.” *Die Friedens-Warte* 94(1-2): 10-29.
- Keane, John. 1996. *Reflections on Violence*. London: Verso.
- Kinkelbur, Dieter. 2002. “Spuren einer Praxisphilosophie des Friedens.” Schmidt, Hajo and Uwe Trittman eds. *Kultur und Konflikt. Dialog mit Johan Galtung*. Münster: agenda.

- Koch, Claus. 1973. "Friedensforschung – ein Pyrrhussieg." Senghaas, Dieter ed. *Friedensforschung und Gesellschaftskritik*. Frankfurt am Main: Fischer.
- Krippendorff, Ekkehart. 1972. "Staatliche Organisation und Krieg." Senghaas, Dieter ed. *Friedensforschung und Gesellschaftskritik*. Frankfurt am Main: Fischer.
- Lawler, Peter. 1995. *A Question of Values. Johan Galtung's Peace Research*. Boulder: Lynne Rienner Publishers.
- Lear, Jody B. and Diane Macaulay and Meredith Reid Sarkees eds. 2012. *Advancing Peace Research. Leaving traces, selected articles by J. David Singer*. Londond and New York: Routledge.
- Lindenberger, Thomas and Alf Lüdtke. 1995. "Einleitung – eine Kontinuität der Moderne." Lindenberger, Thomas and Alf Lüdtke eds. *Physische Gewalt. Studien zur Geschichte der Neuzeit*. Frankfurt am Main: Suhrkamp.
- Loetz, Francisca. 2012. *Sexualisierte Gewalt 1500-1850. Plädoyer für eine historische Gewaltforschung*. Frankfurt am Main/New York: Campus.
- Narr, Wolf-Dieter. 1974. "Gewalt und Legitimität." Otthein Rammstedt ed., *Gewaltverhältnisse und die Ohnmacht der Kritik*. Frankfurt am Main: Suhrkamp.
- Nedelmann, Birgitta. 2002. "Kommentar." Ziemann, Benjamin ed. *Perspektiven der Historische Friedensforschung*. Essen: Klartext Verlag.
- Nunner-Winkler, Gertrud. 2004. "Überlegungen zum Gewaltbegriff." Heitmeyer, Wilhelm and Hans-Georg Soeffner eds. *Gewalt. Entwicklungen, Strukturen, Analyseprobleme*, Frankfurt am Main: Suhrkamp.
- Popitz, Heinrich. 1992. *Phänomene der Macht*. Tübingen: J. C. B. Mohr.
- Ray, Larry. 2018. *Violence and Society*. London: Sage.
- Reemtsa, Jan Philipp ed. 1991. *Folter. Zur Analyse eines Herrschaftsmittels*. Hamburg: Junius.
- Riekenberg, Michael. 2008. "Auf dem Holzweg? Über Johan Galtungs Begriff der 'strukturellen Gewalt'." *Zeithistorische Forschungen/Studies in Contemporary History*, Online-Ausgabe, 5(1).

- Roth, Michael. 1988. *Strukturelle und personale Gewalt. Probleme der Operationalisierung des Gewaltkonbegriffs von Johan Galtung*. Frankfurt am Main: HSKF.
- Schmidt, Hajo. 2002. "Die Kritische Friedensforschung und die Herausforderungen der Kosmologieanalyse." Schmidt, Hajo and Uwe Trittman eds. *Kultur und Konflikt. Dialog mit Johan Galtung*. Münster: agenda.
- Schmidt, Hajo. 2001. "Krieg, Frieden und Gewalt im Denken Johan Galtungs: Laudatio anlässlich der Verleihung der philosophischen Ehrendoktorwürde am 23. Mai 2001 durch die Fernuniversität Hagen." *Leviathan* 29(4): 507-525.
- Schotte, Dietrich. 2020. *Was ist Gewalt?: Philosophische Untersuchung zu einem umstrittenen Begriff*. Frankfurt am Main: Vittorio Klostermann.
- Schroer, Markus. 2004. "Gewalt ohne Gesicht. Zur Notwendigkeit einer umfassenden Gewaltanalyse." Heitmeyer, Wilhelm and Hans-Georg Soeffner eds. *Gewalt. Entwicklungen, Strukturen, Analyseprobleme*. Frankfurt am Main: Suhrkamp.
- Schumann, Dirk. 2002. "'Gewalt' als Leitbegriff der Historischen Friedensforschung." Ziemann, Benjamin ed. *Perspektiven der Historische Friedensforschung*. Essen: Klartext.
- Schumann, Dirk. 1997. "Gewalt als Grenzüberschreitung: Überlegungen zur Sozialgeschichte der Gewalt im 19. und 20. Jahrhundert." *Archiv für Sozialgeschichte* 37: 366-386.
- Senghaas, Dieter. 1973a. "Politische und militärische Dimensionen der gegenwärtigen Kriegs- und Friedensproblematik." Senghaas, Dieter ed. *Friedensforschung und Gesellschaftskritik*. Frankfurt am Main: Fischer.
- Senghaas, Dieter. 1973b. "Nachwort oder Über einige aktuelle forschungsstrategische Probleme in der Friedensforschung." Senghaas, Dieter ed. *Friedensforschung und Gesellschaftskritik*. Frankfurt am Main: Fischer.
- Senghaas, Dieter. 1974. *Gewalt – Konflikt – Frieden. Essays zur Friedensforschung*. Hamburg: Hoffmann und Campe.

- von Trotha, Trutz. 1997. “Zur Soziologie der Gewalt.” von Trotha, Trutz ed.
Soziologie der Gewalt. Opladen: Westdeutscher Verlag.
- Vorobej, Mark. 2016. *The Concept of Violence*. London: Routledge.
- Ziemann, Benjamin. 2002. “Perspektiven der Historischen Friedensforschung.”
Ziemann, Benjamin ed. *Perspektiven der Historischen Friedensforschung*.
Essen: Klartext Verlag.

Abstract

From ‘the iceberg’ to ‘the top’: Criticism on Johan Galtung’s Concept of ‘Structural Violence’

Lee, Dong-Ki*

This research critically deals with Johan Galtung’s concept of “structural violence” by dividing it into four aspects. To begin with, the concept of “structural violence” is too vague and useless for scientific analysis because it encompasses various phenomena such as injustice, inequality, discrimination, and disasters in an undifferentiated way. Second, the concept ignores the gap between structure and action. Structures do not act. Third, the concept takes no notice of the dynamic process of violence and the physical experience of violence because it focuses attention only on the abstract outcome of structure. Finally, this perspective has lost its practical character as it excludes war from peace studies. The concept and perspective of “structural violence” have closed our eyes to the dynamics of violence. In order for the pluralistic perspective of peace theory to develop, it is necessary to move away from the concept of “structural violence.”

Key Words: Johan Galtung, Structural Violence, Direct Violence, Positive Peace, Peace Studies

논문투고일: 2022. 8. 15.

논문심사일: 2022. 8. 18.

게재확정일: 2022. 8. 19.

* Professor, Department of Peace Studie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leedongki@kangwon.ac.kr